



수도권, 전국 면적의 12%이나 전체 인구 50% 거주!

- ▶ 국토교통부의 '수도권과 지방현황(수도권 권역별 현황)'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'수도권' 면적은 전국 면적의 12%이나,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수도권 중 '서울시 등 16개 시'를 포함하는 '과밀 억제 권역'의 경우 인구 집중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. 수도권 17% 면적에 72%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돼,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 집중도 편차가 큼을 보여준다.

[그림]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과밀 현황 (2021)

수도권 면적 vs 인구	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(16개 시)
면적 : 전국 12%	면적 : 수도권 전체 17%
인구 : 전국 50%	인구 : 수도권 전체 72%

*자료 출처 : e-나라지표, 수도권과 지방현황(수도권 권역별 현황) (https://www.index.go.kr/potal/main/EachDtlPageDetail.do?idx_cd=2729)

**Note. 정부에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, 자연보전권역 등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(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),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내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(수도권 과밀억제지역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, 서구 일부, 인천경제자유구역[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] 및 남동 국가사업단지 제외),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 등 10개동만 포함)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(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))

*참조) 한국일보, "누구나 압사 직전의 경험이 있다"... 일상이 된 한국형 '과밀문화', 2022.11.02. (<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2110209440002934>)

◎ OECD 국가 중 '대한민국' 인구 밀도 단연 1위!

- ▶ 한국의 인구 과밀을 OECD 국가와 비교해 보았다.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1km²당 무려 516명을 기록해 OECD 38개국 중 단연 1위이다. 가로, 세로 각 1km 사각형 안에 사람이 516명 들어차 있는 셈이다. 2위는 네덜란드로 419명, 3위 이스라엘 418명, 4위 벨기에 3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- ▶ OECD 국가 중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는 호주로 1km²당 3명으로 한국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.

[표] OECD 주요국의 인구 밀도 (명/1km²)

국가별	인구밀도	국가별	인구밀도	국가별	인구밀도
1.대한민국	516	5.일본	333	28.미국	33
2.네덜란드	419	6.영국	277	36.캐나다	4
3.이스라엘	418	8.독일	233	37.아이슬란드	4
4.벨기에	375	14.프랑스	118	38.호주	3

*자료 출처 : 통계청 KOSIS, 인구동태 및 밀도, 2020 (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DT_2KAA205&conn_path=I2)

(통계청 '인구동태 및 밀도'에서 OECD 38개국만 2020년 기준으로 추출함. 단, 미국, 벨기에, 스위스, 오스트레일리아는 해당 연도 데이터가 없어 2019년 자료 사용)

*참고) 한국일보, "누구나 압사 직전의 경험이 있다"... 일상이 된 한국형 '과밀문화', 2022.11.02. (<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2110209440002934>)